

5·18 도청 앞 집단발포 현장 명령자는 조창구

<11공수 63대대장>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 1995년 작성 수사 기록 5월 21일 오전 실탄 10발씩 지급 “위급시 사용하라” 지시 정호용 특전사령관 “실탄 분배는 발포해도 좋다는 의미” 20일 밤 광주역 발포때 최세창 여단장이 실탄 분배 명령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수많은 시민을 학살했던 5월21일 오후 1시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현장 명령자는 조창구 제11공수부대 63대대장(중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3면>

광주일보가 24일 확보한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의 ‘5·18관련 사건 수사 결과’(1995년 7월18일 작성)에 따르면 조창구(당시 36세) 63대대장은 1980년 5월 21일 오전 11시께 ‘대대장 직좌에 보관하

고 있던 대대 경계용 실탄을 중대장들에게 1인당 10발씩 지급하고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위급 시에만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집단발포 명령자 가운데 한 사람인 조 대대장은 5·18 이후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지만 2006년 서훈이 취소됐다.

정호용 특전 사령관은 집단발포와 관련, 지난 1996년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 “자위권 발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발포명령인 것입니다. 즉, 자위권 발동 지시가 내려가고 실탄이 분배됐다는 얘기는 발포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5·18관련 사건 수사결과’는 집단발포

상황을 상세히 담고 있다. 계엄군은 21일 12시께 장갑차 2대와 함께 도로에 횡대로 포진하고 있었다. 시민들은 장갑차, 트럭, 버스, 택시 등 100여대의 차량을 전면에서 내세우고 공수부대의 저지선을 압박, 양측은 10m 가량 거리에서 대치했다.

시민들은 낮 12시까지 공수부대의 철수를 요구했지만, 공수부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오후 1시께 시민군의 장갑차가 갑자기 돌진하자 놀란 소대장이 계엄군 장갑차에 거치된 기관총을 공중에 발사했다. 곧바로 시위대 버스와 트럭이 도청 쪽으로 돌진하자 공수부대 장교들

은 차량을 향해 실탄을 발사했다. 집단발포가 자행된 것이다. 이들은 조 63대대장이 미리 지급한 실탄을 시민에게 퍼부었다.

당시 특전사 11공수여단 63대대 소속 지대장이었던 윤성식(가명·60·중위)씨는 광주일보와 인터뷰(2017년5월15일자 1면·3면)에서 이 사실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그는 “즉각적으로 듣고 있던 M 16 소총을 앞을 향해 발포했다. 탄창 한 통이 바닥이 날 때까지 계속해 왔다. 달려오는 버스 운전기사와 차량 앞바퀴를 집중 사격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0일 밤 11시30분께 ‘광주역 3공수 집단발포’의 명령자는 최세창(당시

47세) 당시 3공수 여단장이었다. 그의 명령으로 시민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당했다.

최 여단장 역시 20일 밤 10시30분께 대대장들이 실탄지급 등 지원을 요청하자 “위협용으로 사용하되, 그 외 사용시에는 사전에 보고하라”는 지시와 함께 실탄 분배를 명령했다. 이는 광주 지역을 관할하는 505 보안대가 작성한 문서에 적시된 발포명령 시간대와 맞물려 있다. 해당 문서에는 ‘23 : 15 전교사 및 전남대 주둔 병력에 실탄 장전 및 유사시 발포 명령 하달(1인당 20발)’이라고 적시돼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한국시리즈 미디어데이 팽팽한 기싸움

25일 개막하는 KIA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24일 광주시 북구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KIA 두산 감독·선수들이 우승트로피를 만지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두산 오재일, 유희관, 김태형 감독, KIA 김선빈, 김기태 감독, 양현중.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8년 기다린 ‘V11’...KIA “마지막에 웃겠다” 오늘 챔스필드서 두산과 KS 1차전

8년을 기다린 ‘가을 잔치’가 시작된다. KIA 타이거즈가 25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2017 KBO 한국시리즈 1차전을 치른다.

<관련기사 20면>

175일간의 1위 독주를 한 ‘정규시즌 챔피언’과 한국시리즈 3연패에 도전하는 ‘디펜딩 챔피언’의 격돌이자, 한국시리즈에서 처음 전개되는 두 팀의 맞대결이다. 이번 한국시리즈는 챔피언스필드에서

처음 열리는 포스트 시즌 경기로도 의미가 있다. 지난 2014년 새 안방으로 옮긴 KIA는 가장 첫째 8위로 시즌을 마감하면서 쓸쓸한 가을을 보냈다. 지난해에는 정규시즌 5위로 LG 트윈스와외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준플레이오프 티켓 획득에 실패하면서 안방에서 잔치를 이어가지 못했다.

챔피언스필드 첫 포스트 시즌 경기를 한국시리즈로 장식하게 된 KIA는 올 시즌 ‘20승-200이닝’을 동시에 이룬 외국인 에

이스 헨터 노에시를 내세워 1차전 승리를 노린다. 두산은 ‘가을 사나이’ 더스틴 니퍼트로 맞불을 놓는다.

한국시리즈 ‘불패 신화’를 잇기 위한 준비는 끝났다. KIA는 전신 해태가 프로야구 출범 다음 해인 1983년 4승 1무로 한국시리즈를 제패하면서 우승의 역사를 시작했다. 이후 나지완의 끝내기 홈런이 터졌던 2009년까지 ‘호랑이 군단’은 10번의 한국시리즈에서 모두 우승팀이 되면서 ‘불

패 신화’를 이어왔다.

지난 3일 시즌 최종전에서 1위를 확정된 뒤 결승 무대를 기다렸던 선수들은 4차례 연습 경기를 통해 실전 점검을 끝냈다.

정규시즌 우승에 이어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을 지휘하게 된 KIA 김기태 감독은 “1년간 정말 여러 일을 겪었다. 정규시즌 1위에 만족하지 않겠다. 준비 잘해서 재미있는 경기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제2회 운동주 서시 문학상 오태환 시인

수상작 ‘바다, 내 언어...’

광주일보와 계간 ‘시산맥’이 공동 주최하는 제2회 운동주 서시 문학상에 오태환(사진) 시인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바다, 내 언어들의 희망 또는 그 고통스러운 조건·31’ 외 6편이며 상금은 1000만원. <관련기사 17면>

운동주 서시 문학상은 지난 한 해 각종 문예지에 좋은 작품을 발표하고, 운동주 시인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시인을 대상으로 심의위원들(위원장 이성렬 시인)이 2개월에 걸쳐 심의해 후보를 추천했다.

본심을 맡은 허영자·송찬호 시인과 신진숙 평론가는 “오태환 시인의 작품이 서정의 물음에 가장 충실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며 “그의 작품들은 현대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고 깊이 있는 사유를 밀도 있는 서정의 시선과 결합해낸 결과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행하듯 번지고 사라지는 수다한 언어와 이미지들 사이에서 그가 만들어낸 시적 순간들은 우리 시사에서 귀중한 풍경으로 자리할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운동주 서시 문학상 수상자인 오태환 시인(58)은 서강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했으며 1984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계해일기’가 한글일보에 ‘최익현’이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이후 고형렬, 강태형, 양애경, 김백겸, 최문



수, 김정미, 고운기, 안도현 시인과 ‘시힘’을 결성해 활동했으며 ‘북한산’, ‘手話’ 등 다수의 시집과 시론집 ‘경계의

시 읽기’ 등을 펴냈다.

한편 해외에서 우리말로 시를 쓰는 시인들을 대상으로 한 운동주 서시 해외작가는 미국 메릴랜드 Rockville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기순 시인에게 돌아갔다. 수상작은 ‘이슬이 비치다’ 외 4편이며 상금은 300만원. 이상은 해외에서도 운동주의 시 정신이 널리 퍼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정됐다.

또한 운동주 서시 해외작가 특별상에는 미주한국문인협회 제11대 이사장과 12대, 19대 회장을 역임한 광주 출신 문인구 시인(78)이 수상자로 결정됐다.

시상식은 11월 25일 오후 5시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된다. 문의 010-8894-8722.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피부의 균형을 바로잡아 찬란하게 빛나는 궁극의 윤기를 얻다

설화수 윤조에센스

속부터 우러나오는 건강한 피부 윤기. 치유된 없는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생기, 탄력, 투명, 자생력, 영양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설화수 윤조에센스

삼천 가지 귀한 원료에서 찾은 다섯 가지 성분의 자음단™이 피부 본연의 윤기를 찾아주고 피부의 부족한 기운을 채워 가장 이상적인 피부균형을 완성합니다

매일 아침, 찬란하게 빛나는 윤기피부를 만나보세요

Sulwhasoo

• 설화수 플레그스틴토어 및 전곡 백화점, 아모레 키오스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플레그스틴토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